



## NXP, 폭스바겐의 MEB 전기차 플랫폼에 배터리 관리 솔루션 공급

- 혁신적인 MEB 플랫폼에 기반한 폭스바겐의 **새로운 ID 시리즈**가 전기차(EV) 주행 한계를 확장
- NXP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은 저전압 및 고전압 배터리 전반에 걸쳐 유연성과 **설계 용이성**을 제공하여 높은 정확도, 최적의 견고성 및 기능 안전성 구현
- 정밀 배터리 관리를 통해 **주행거리, 수명, 안전성 향상**

**2020년 10월 21일** – 커트 시버스(Kurt Sievers) NXP 최고경영자(CEO)는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NXP 커넥트(NXP Connects) 개막 기조연설에서 전기차(EV)용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폭스바겐과의 협업을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자사의 혁신적인 MEB 플랫폼에 NXP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도입해 주행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며 안전성을 강화했다. NXP의 BMS는 소형차부터 획기적인 ID.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물론 ID.4, 아우디 e-Tron, 포르쉐 타이칸과 같은 고급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e-모빌리티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폭스바겐 AG 차량 에너지 공급 및 고전압 시스템 개발 부문 총괄인 홀거 맨즈(Holger Manz) 박사는 "폭스바겐의 배터리 전기차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9년까지 최대 75개의 완전 전기차 모델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많은 자동차 모델에 확장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안전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배터리의 최대 전력 성능, 주행거리 최적화, 배터리 수명 연장 등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가 수년간 EV 개발에 노력해 왔지만 주행거리 연장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폭스바겐은 ID 시리즈를 출시하며 45kWh, 58kWh, 77kWh 용량의 다양한 배터리 모델을 제공하여 EV 주행의 한계를 확장하고 있다. 중형 배터리의 경우, 100kW DC(직류) 급속 충전 모드에서 30분 동안 충전하여 최대 260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고, 대형 배터리로는 완충 시 최대 340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

라스 레저(Lars Reger) NXP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폭스바겐은 다가오는 전기화 시대에 대비해 고객들에게 풍부한 옵션을 제공한다. NXP는 모델 전반에 걸쳐 확장 가능한 정밀 시스템 레벨 솔루션을 제



공함으로써 설계를 용이하게 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위 20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16개사가 NXP 배터리 관리 솔루션을 자사 설계에 포함하고 있다.

### **NXP 반도체 소개**

NXP® 반도체(나스닥: NXPI)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첨단 솔루션을 개발하여, 안전하게 연결되는 스마트 월드를 만들고 있다. NXP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용 보안 연결 솔루션의 선도 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및 IoT, 모바일, 통신 인프라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NXP는 60년 이상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29,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19년 매출은 미화 88억 8천만 불이다. NXP 관련 뉴스는 [www.nxp.com](http://www.nxp.com)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NXP 반도체 블로그 (<http://blog.naver.com/nxpkor>)에서도 NXP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